

박제된 선택을 거부한다 **행복한 여성주의**

연세대학교 제 16대 총여학생회

happyfem@yonsei.ac.kr / www.yonsei.ac.kr/~ysfem

She Said

2004. 1호

기획

그녀들... '반'을 말하다

절대적이고 상대적인 사랑의 반성문과 이야기
성폭력에 반대한다는 것은

남성이 배려한 세상

정치적으로 올바르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재미있게, 또는 외람되게 미디어 읽기

이탈의 여성주의로 읽는 이야기

'그녀'들의 비밀을 들어보세요

- 유쾌하고 함있는 그녀들의 위선과 위판 (8명의 여인들)

6월이 만난 문화&문화장이 여성주의 + 문화?!

영화 비평

당신은 순정만화를 좋아한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성주의 만화에서 생긴 일

여성의 사랑 가족에 대한 '어떤' 욕망

영화의 담론을 파헤친 일상다반사 졸업한 여성주의자의 세상 살기



She Said



She Said

그녀는 말했고,
말했고,
또 다시 말한다...

She Said

2002년 픽북이 수다

2003년 Day Dream

즐겁고 유쾌한, 그러나 진지하며 때로는 고통스러운 그녀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여성들의 목소리.
사실 여성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이야기해왔습니다.
살의 구석구석에서 그녀들이 마주하는 작은 문턱들과 푸른 땅
그리고 생의 지저귀는 행복에 대해.
그러나 세상은 그녀들의 목소리가 가치 없는 것처럼,
혹은 아예 없는 것처럼 귀를 막거나 혹은 그 말들을 오역합니다.
그렇기에 더욱 소중한 그 목소리, 그녀들이 마음껏 말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말해야 하는, 그리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목소리를 이어 이제, 2004년,
She Said로 다시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 05 기획 | 그녀들... '반'을 말하다
반에 대한 단상들 • 6
반에서 나오며 • 9
여자친구 만나기 • 12
나는 그렇게 여자친구들을 만났다 • 13
- 14 절대적이고 상대적인 여량의 반성폭력 이야기
성폭력에 반대한다는 것은
- 20 남성이 바라본 세상
정치적으로 올바르기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 24 이갈의 여성주의로 읽는 이야기
'그녀'들의 비밀을 들어보세요
- 유쾌하고 힘있는 그녀들의 위선과 위반 (8명의 여인들)
- 28 만화 비평
당신은 순정만화를 좋아한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 34 흐름이 만난 문화&문화쟁이
여성주의 + 문화??

CONTENTS



05

- 16 행복한 여성주의와 함께 하는 이야기1
반성폭력 학칙 개정이 시급하다
- 22 재미있게, 또는 외함되게 미디어 읽기
- 19 행복한 여성주의와 함께하는 이야기2 여학생수첩 광고
- 26 여성주의 만화 속에서 생긴 일
- 31 행복한 여성주의와 함께하는 이야기3 홈페이지 광고
- 32 여성학 서평 가족에 대한 '어떤' 욕망
- 36 셀의 달콤쌔빠름한 일상다반사
- 졸업한 여성주의자의 세상 살기
- 38 행복한 여성주의와 함께하는 이야기4 메세임 모집 광고
- 39 여자만의 방
- 40 독자기고안내글

기획 그녀들... '반'을 말하다

그녀들... '반'을 말하다



3월... 대학의 새 학기가 시작되는 이 공간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대학에서의 첫 관계맺음-반에 대한 여성주의의 말하기는 최근 몇 년간 반복되어온 경향이 있지만 한絲 역시도 변하지 않은 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올해도 여전히 새내기들은 반에서 처음 대학을 만나고 그곳에서 고향집만큼 하여 자기 자리를 찾으려 애를 태니 말이다.

그러나... 반에 대해-관계에 대해 말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장차 반이라는 공간에 대한 더 깊은 고민과 이해 없이 일방적인 규정과 순위는 그러므로 공허한 선언만을 남발하게 될까봐 조심스러웠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녀들의 말을 듣는 것. 대학 초년 시절의 얼마간을 반에서 옥신각신했던 그 와중에 힘들거나 행복했던 지금은 반 혹은 어딘가에 있을 그녀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다.

네 개의 꼭지 처음 두 가지는 이런저런 경험들 끝에 반을 나오게 된 이들의 다음 두 가지는 반에서 미처 만나지 못했던 보석 같은 여자친구들을 그 밖에서 만난 이들의 이야기이다.

모두 개인적인 고백의 글이지만, 이 글의 읽는 당신이 그녀들의 이야기에 작은 공감이라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며, 그리고 그 공감이 당신에게 힘이 되기를 바라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반에 대한 단상들

반, 환상 속의 그대

아직도 기억난다. 합격증을 받으러 백양로를 숨 가쁘게 오르던 그 날이. 대학이라는 공간, 대학생들에 대해 고등학교 3년 내내 일말의 환상 혹은 동경을 지니고 있던 나로서는 어서 빨리 멋진 선배들과 동기들을 만나 누구나 꿈꾸어오던 완벽하고 발랄한 새내기 일상을 꾸려내고 싶었다. 바람이 매서운 1월 말이었지만 모든 것들이 파사롭고 푸릇푸릇해 보일만큼 나는 적지 않은 기대에 차 있었다. 곧 있으면 합격증을 받고 선배들과 인사라도 한 뒤 같은 고등학교에서 온 친구들과 축배를 들며 저녁을 보내게 될 터였다.

내가 소속되어있는 문과대의 로비에 도착하자마자 나를 처음 맞은 것은 갑작스런 선배들의 이끌림이었고, 새내기 환영회 행사가 마련되어있는 강의실로 가면서 나는 같이 온 친구와 (영영) 헤어졌다. 이후 동아리 소개, 학교를 더 잘 알기 위한 퀴즈 풀이, 응원 배우기, 선배들의 소개 등 반에서 준비한 프로그램들이 이어지면서 시간은 어느덧 늦은 6

반 커플 러브샷을 중용하는 반. 새터 술자리에서 남자선배들이 새내기 여자후배들에 둘러싸여 흥겹게 술 마시기를 권유하는 반. 여학생들은 온전히 독립적인 개인이 아닌 남자동기/후배/선배 중 누군가와 관계맺음하거나 그들에게 동일시를 해야만 비로소 호명이나마 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드는 반을 비판하는 것과 반을 지지하는 것이 양립하는 것은 솔직히 무척 어려운 일이다.



시계로 접어들었고, 반 행사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될 술자리로 이동하기 전 모두가 원형으로 둘러서서 응원 연습을 했다. 단체 행사를 적극적으로 즐기는 편은 아니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선배들을 비롯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나름대로 즐거운 시간을 보낸 편이었다. 선배들이 '아카라카'를 새내기들에게 시키기 전까지만 해도, 그리고 원형의 중심에서 아카라카를 외칠 사람으로 내가 지목되었다는 것을 괴롭게 받아들이기 전까지만 해도 말이다!

키가 작은 '여자'인 내가 지목되자 몇몇 선배들은 '여자'한테 이런 것 시켜도 되냐며 보호의 자세를 취하였지만 나는 되려 할 수 있다

며 깃발을 들고 가운데로 나갔다. 첫날부터 강인한 인상을 심어주어야만, '여학생'임에도 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각인시켜야만 선배들과 동기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그러므로 대학 4년이 즐거울 수 있으리라는 자기 최면을 걸면서 말이다.

고역스럽게 안 나오는 목소리를 죄다 짜내어 아카라카를 그러저럭 무사히 끝낸 후 술자리로 이동하면서 오히려 나의 긴장감의 끈은 팽팽함을 더하였다. 못 보던 남자선배들이 어디선가 나타나 술자리를 채우기 시작했고, 그나마 그 짧은 시간 동안 친해졌던 여자 동기들은 선배들이 "떨어뜨려놔야 한다"며 다른 자리로 가 앉아 나는 술자리의 대부분 동안 남자선배들을 독대하며 보낼 수밖에 없었다. 멋지고 똑똑하고 살갑게 행동하는 여자 후배로 그들과 함께 어색하지 않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나는 한층 무리하며 깔깔거리고 수다를 떨었다. 그 때 내가, 혹은 다른 어떤 여자 새내기들이 관계를 정립함에 있어 좀더 위급하게 여겼던 것은 언니들과의 관계이기보다는 숫자와 힘에서 다수(majority)를 차지하는 '오빠'들과의 관계였다. 그들에게 여자 새내기야말로 밥을 '더 사주고 싶은' 존재이고, 잠재적 여자친구이며, 술을 따라주길 바라는 존재라는 사실은 남자 선배들과 여자 새내기들 간에 일종의 '돈독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을 낳는다. 따라서 그들과의 관계에 근거하여 일상을 꾸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대학생활의 기초가 될 반 생활이 즐거울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다(물론 여기서 '즐거움'의 의미가 누구의 기준에 의해 어떻게 구성되는가는 문제는 중요하다).

아무튼 나는 '오빠' 하며 남자선배의 담배연기모기를 칭찬해주는 등 실질 감정노동(emotional labor)을 수행한 뒤, 집이 멀다는 핑계로 술자리를 일찍 도망쳐 나왔다. 반이라는 단위로 응축되어 나타난 내 환상 속의 대학과 선배들의 첫 인상은 그렇게 저물어갔다.

'몰'하게 기면을 쓰다

신입생 환영회 이후로 어찌된 일인지, 혹은 정말로 과도한 노력의 성과 때문인지 나는 반 분위기를 주도해나가는 새내기들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남자선배와 반 커플이기도 한 동시에 어떤 반 행사나 굿은 일



이 발생할 시에도 남자애들과 똑같이 될 준비가 되어있었던 나에게 어찌면 그 중심의 자리는 당연한 것이기도 했다. 반방이나 술자리에 빠짐 없이 끼어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병예남자'로 일주일을 보내는 한편, 축제나 기타 반 행사 때는 하루 종일 부침개와 안주거리를 만들기도 하는 가사노동자로, 어떤 경우에는 단지 반 선배의 여자친구로 호명되고 정체화되면서 보내는 일상은 그렇게 일종의 권력을 안겨다주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무척 성가시면서도 소모적이고 정작 스스로에게 그렇

게 유쾌하지만은 않은 하루하루였을 테지만, 그 당시에는 그와 같은 대학 생활이 진심으로 즐거웠노라고 감히 말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반이 나에게 교묘하게 강요하는 자발성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딱히 언어화해낼 수 없었던 상황은, 지속적으로 그 불편함을 감내하고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인지하라는 스스로에 대한 명령으로 구체화되었다.

특히 반 행사나 술자리와 같이 반이라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자리에 새내기 여학생들의 숫자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한 것에 대해 선배들이 아쉬움을 감추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도 '경역화로 인한 대학 내 공동체 붕괴' 담론 등을 효과적으로 채택하며 무성화(gender blind)된 논리로 떠나간 여자친구들을 붙잡으려 애쓰지는 않았나 한다. 여자친구들은 자신들에게 요구되는 갑갑한 각본이 싫어서였을 뿐인데 말이다.

반 커를 러브샷을 총용하는 반 새터 술자리에서 남자선배들이 새내기 여자후배들에 둘러싸여 흥겹게 술 마시기를 권유하는 반, 여학생들은 온전히 독립적인 개인이 아닌 남자동기/후배/선배 중 누군가와 관계맺음 하거나 그들에게 동일시를 해야만 비로소 호명이나마 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드는 반을 비판하는 것과 반을 지지하는 것이 양립하는 것은 솔직히

무척 어려운 일이다. 이 둘은 어찌 보면 같은 애정의 발로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교 생활에 근간이 되는 반을 '보존하고' 모두가 편안함을 누릴 수 있으려면 문제 제기는 되도록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속닥거리고 잊어버리거나 혼자 술족이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 '정상화'된 상황에서, 반 생활은 그렇게 분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는 꽤 오래도록 '잘' 하게 미소 띠는 표정의 가면을 쓰고 1년 반이라는 시간을 잘 버텼으며, 그 이후에도 비슷한 자세로 종종 반방과 반 행사에 발걸음을 하곤 했다. 중국에는 반방에 앉아있는 것이 더없이 괴로울 정도가 되어 스스로 다른 공간에 에너지를 투자하게 되었지만 말이다. 가면을 벗어던지고 나서 그제야 생각해본다. 나를 집어삼킨 반 분위기에서 입 다문 채 어떻게 그 긴긴 시간을 보냈는지 믿을 수 없으면 서도 대견하기조차 하다고.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미완'의 반?

반 구성원들이 점차 '원심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적지 않은 친구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안 된 일이지만, 이제 반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물론 대학생활의 기초 단위로 기능하는 반-생각해보라. 새내기 수강 신청부터 축제, 연고전, 대부분의 친밀한 관계 구성은 반을 중심으로 먼저 시작된다는 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을 구성하는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다양한 목소리가 결여된 성별화된(gendered) '여러분'은 그저 미완의 허구적인 즐거움을 만들어낼 뿐이다.

내 대학 4년의 첫 단추를 끼워준 반에 대한 첫 인상은 아쉽게도 그 몇 년간 거의 변하지 않은 듯 보인다. 반 사람들의 얼굴만 바뀌었을 뿐, 반에 첫 발을 내디딘 나와 같은 많은 수의 여자친구들에게 그 첫인상은 유사하게 각인된다. 그러니 어디서 자신의 자리를 찾을지 몰라 엉겨붙어 서있는 여학생에게 아까라카용 반 깃발이나 술병, 뒤집개의 손잡이를 건넬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목소리를 피울 수 있도록 감수성을 발휘하는 것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나갈 여지를 남기는 것이 아닐까. **She said**

반에서 나 오 며

그들과 관계맺기? 진짜 나를 찾기.

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서 첫 관계 맺음을 시작한 곳이었다. 다른 경우의 수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지 않았을까.

대학에 가면 다들 연애한다더라. 대학에는 고등학교 적 '친구'와는 다른 '선배'와 '동기'라는 특별한 관계 맺음이 있다. 첫 학기에는 선배들한테 밥 얻어먹으며 지내는 게 일이다. 언어영역 문제집에 코 박고 있던 고개를 들어 문학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뭔가 더 깊고 지성적인 이야기들을 나눌 선배들을 만날 수 있다....

특별한 포부와 의지 없이 그저 남들 하는 대로 수능을 치고 졸업을 하고 독립을 하고 대학에 당도했을 때, 고등학교와는 다른 대학에 대한 막연한 기대의 내용들은 주변에서 들은 이런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 반에서 만난 사람들에게서 이런 것들을 얻기를 기대했었고 얻어야만 나의 대학생활이 행복할 것만 같은 강박을 가지고 나의 대학 생활이 시작됐다.

결과부터 말하자면, 이 말로 대신할 수 있을까. 나는 지금 반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나는 왜 반을 나왔을까. 며칠 전-2월 말 OT 기간에 학교를 휩쓸었던 떠들썩한 반별

나에게는 전략이 필요했다. 그 수많은 그들 사이에 '나'로 남아있으면서 동시에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한 전략. 다시 말해 처음 만나는 남자친구, 남자선배들 사이에서 존재감 있는 여자가 되기 위한 전략.



용원이나 반기를 들고 무리를 지어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두통처럼 머리가 지끈하고 아파왔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막연하고 알 수 없는, 그리움도 아닌 서글픔도 아닌 이 감정은 또 무엇일까...

반 오티에 참가하지 않으면 친구를 만들 수 없다고 하길래, 설레임 반 두려움 반으로 반 오티 자리에 찾아가면서 나의 반 생활은 시작되었

다. 족히 60명은 넘는 사람들을 처음 만나 이름을 외우기도 급급했던 오토와 새터 기간.. 사람들은 '친해지기 위해 끊임없이 서로를 소개하고 게임을 하고 술을 마셨다.

그 처음의 며칠 동안 내가 느꼈던 것은 '내 자리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 분주하고 어색한 모임들에서 나는 20년 동안의 나만의 역사를 가진, 나만의 성격과 취향을 가진 '나' 일 수가 없었다. 선배들에게 나는 밥을 사주어야 하는 50명이 넘는 후배들 중 한명일 뿐이었고, 동기들에게는 서로 이야기할 거리는 많지 않지만 같은 반으로 묶였으니 어쨌든 서로 인사를 나누어야 하는 사람이었다. 당황스러웠다. 대체 나는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이 사람들과 스치듯 이 만나 그저 그런 인사를 나누고 밥을 먹으며 선배들에 관해 동기들에 관해 별로 재미있지도 않은 수다를 떨며 웃어야 하는 이 생활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한단 말인가...

거기에 더해 또 하나, 나를 괴롭히던 것이 있었다.

남자애들, 선배들, 여고 안에서 여자애들과의 관계에 익숙해져 있다가 처음 성이 다른 이들을 가까이 접한다. 그리고 선배라는 존재도 어색하다. 차차 적응해갈 꺼라 생각하지만, 답답한 마음이 있다. 선배들에게 어떻게 마음을 여는지,

선배들과는 어떻게 진심을 나누는지, 더구나 남자애들은, 여고에서 나의 역할은 아무래도 남성적인 것 이었고, 여자애들만의 집단에서는 여전히 그런 위치가 내게 익숙하다. 처음 이성과 섞인 집단-진짜 남자애들이 있는 상황에서, 좀 헛갈린다'

그 시절 4월 즈음의 일기 중 한 부분이다. 관계맺음이 인간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이 나와 상대 모두에게 힘이 되는 관계 맺음인지는 여전히 모르지만, 반에서의 관계 맺음에서 내가 가장 '어쩔 줄 몰라했던' 부분이 그 구절들 속에 들어있다. 남자 애들 그리고 남자 선배들, 글의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대학에 대한 피상적인 기대에 충실했던 나였으므로 당연히 연애가 하고 싶었고 시시콜콜 일상을 나눌 사람보다는 뭔가 인생에 대한 고민들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져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이 두 가지 바램은 서로 뒤섞여서 결국 내게는 여자친구들, 여자선배들과의 관계 맺음 보다는 남자친구들, 남자선배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졌지만 그러나 그들과의 관계가 사실은 더 불편한 그런 상황. 반에서 오가는 '사랑의 짝대기'에 대한 뒷담화로 굴러가던 3,4월의 반 생활은 나의 이런 상황을 더 악화시키곤 했다.

나에게는 전략이 필요했다. 그 수많은 그들 사이에 '나'로 남아있으면서 동시에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한 전략. 다시 말해 처음 만나는 남자친구, 남자선배들 사이에서 존재감 있는 여자애가 되기 위한 전략.

우선, 나는 시시해보이고 싶지 않았다. 학교 앞 카페 어디에 케이크가 맛있다고 이야기하기 보다는 언론고시는 언론개혁의 당연한 수순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고, 봄가운처럼 산뜻한 스커트를 차려입으며 기분전환을 하기 보다는 잔디밭에서 마시는 소주 한잔을 나의 낭만으로 삼고 싶었다. 이것이 내가 생각한 '시시해보이지 않음'. '여대생' 하면 떠올릴만한 세련미나 소비적인 이미지가 아닌, 80년대 대학의 코드를 입고 싶었던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그냥 여자애가 아닌 남자동기-선배들과 정치적인 이야기, 문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들과 동류로서 대등한 여자애가 되려고 했다.

그냥 그것뿐이었으면 나의 가면놀이는 성공적으로 지속될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 문제는 나는 그들에게 동료인 동시에 연애상대자 또한 되고 싶어했다는 데에 있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같이 만든 반 소모임에



서 이야기를 주도하고 인정받는 것은 나였지만, 연애를 시작하는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다가 가끔 귀엽게 웃는 여자애였다. 그리고 나에게 남는 것은 웬지 모를 허망함.

그런 저런 끝에 나는 결국 반에서 나왔다. 반에서 점점 멀어지면 시기에 나는 스스로에게 '부작용자'의 딱지를 붙였나 보다. 반의 주류가 되지 못한, 연애도 못한 1년간의 반 생활을 '실재'로 내심 규정짓고 있었던 것이다. 일종의 패배감이랄지...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나는 그 경험들을 다시 꺼내보며 내가 반을 나온 이유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반'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때부터 스스로에게 붙인 '부작용자'라는 딱지가 더 이상 패배감이 아닌 성찰의 시선이 되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나와 묘하게도 비슷비슷한 이유로 반에서 나온 여자친구들을 만나 이야기하면서 얻을 수 있었던 성찰이었다.

작정하고 자기고백을 하기 위해 쓰는 글은 힘들다. 최소한의 성찰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지난 일에 대한 고백은 언제나 부끄러움을 동반할 수밖에 없으므로, 돌이켜 보면 그 당시 나를 지배하고 있던 이런 이분법 자체가 참으로 우습다. 솔직한 나의 모습을 모르던 시절에 '그들과의 관계 맺음-동료/애인 되기의 이분법'에 갇혀 있던 나. 결국 그 이상한 줄타기 속에서 휘청대다가 나는 반을 나왔고 지금은 스스로의 욕망과 스스로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표현할 수 있는 공간에 와 있다. 그 시절? 나를 휘젓던 그 이분법은 누가 만든 것이었을까. 대학-소위 지성의 공간/ 커플들의 캠퍼스라는 흔한 통념들과 그 각본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나와 반이라는 공간, 그 모두가 공범일 것이다.

이 글을 쓰며 내내 걱정되는 한 가지는 너무나 '개인적인' 경험 말하기가 되진 않을까 하는 점이다. 그러나 다행히 단 한 사람이라도 이 글을 읽고 지금 자신이 반에서 겪고 있는 나를 드러내기 위해 힘겨움에 대해 생각해본 이가 있다면, 그녀에게 말해주고 싶다. 혹시 당신의 삶을 채우고 있는 것이 그들의 시선은 아닌지 질문해 보라고, 자신의 시선으로 '나'를 보라고, 그리고 그 '나'를 질문하고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찾아가고, 함께하자고. **She Said**

여 만 나 기 자 친구



대 학에 들어오면서 거쳐야 하는 절차들 - 오리, 새터, 입학식, 개강파티, 새내기학교와 같은 프로그램들은 나에게 있어 제일 먼저 접한 대학문화, 좀 더 엄밀히 말하자면 반 문화였다. 그 때는 그러한 반문화가 대학문화를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대학에서의 자유라는 것, 대학에서의 인간관계라는 것은 이 반문화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다. 나처럼 들떠있는 친구들과 선배들은 대학에 들어왔다는 즐거움과 고등학교 시절로부터의 해방감을 200% 느끼게 해주었고 순간순간 함께 즐거웠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밥 사 주겠다 술 사 주겠다. 라고 말하는 선배들이 낯설게 다가왔고, 무엇보다 한꺼번에 많은 친구들을 '소화' 해 내야 한다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다.

어쨌든, 나의 1학년 1학기는 입학의 설렘과 관계맺음에 대한 '의무' 속에서 몇몇의 선배들을 만났고 몇몇의 친구들을 사귀었다. 그러나 나의 소극적인 태도와 심리적인 부담감으로 인해서인지 그 한 학기 동안 나는 단 몇 명하고만 친구가 될 수 있을 뿐이었다. (친구라는 개념을 좀 더 깊은 관계로 본다면) 물론, 그 외에도 많은 친구들이 좋은 아이들이었고 친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기가 어려웠던 것은 우리가 함께 있는 공간이 불편했기 때문이었다. 많은 술자리와 길거리에서의 응원,

반 단위의 모임과 행사에 참석을 하지 못하면 웬지 한 발자국 멀어졌다는 미묘한 감정.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어려워지는 혹은 어색해지는 그들과의 만남에서 나는 조금씩 회피해져갔다. 적어도 내게는 그런 상황들과 감정들이 다소 불편했던 것 같다. 그러면서 내게 남은 것은 반 친구들과 선배들에 대한 아쉬운 감정 - 서로에게 스쳐지나갔을 뿐인 존재라는 아쉬움과 그와 더불어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는 아쉬움이었다.

그렇게 1년 반 즈음이 지났을 무렵, 내게 아주 기쁘고도 놀라울 만한 일이 일어났다. 그 때 이미 나는 대학 안에는 반 이외에도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러한 공동체 안에 속해 있었다. 물론 반 이외의 공동체에도 직면한 여러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선 소규모라는 것과 공통된 생각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더 편하게 다가왔다. 혹은, 이미 경험한 반에서의 아쉬움을 채우고 싶은 욕심이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그 곳에서 나는 놀랍게도 1학년 1학기 때 밥과 아이스크림을 얻어먹었던 여자선배를 만났다. 어디서 본 사람인데, 어디서 봤더라... 한참을 헤매 뒤에 드디어 떠올랐던 것이 반 선배였던 것이다. 그 때의 순간이 내게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것은, 반에서 스쳐지나갔던 선배를 다른 곳에서 만났다는 것과 그 선배가 '여자'였기 때문이었다.

서로 같은 것을 공유하고 있다는 생각은, 그녀를 1년 반 만에 마주치게 했음에도 친밀감을 느끼게 해주었다. 또한, 새내기 때 나에게 밥과 아이스크림을 사준 선배 라고 인식되어있었던 그녀를 한 동안 잊고 있다가 다른 곳에서 만났다는 것은, 그녀를 새로 만난다는 것보다 더욱 새로운 느낌이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난 그녀가 나의 '여자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감에 작은 기쁨을 느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의 일상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 또한, 행복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미 다른 과로 배정을 받은 반의 여자 친구들과는 연락이 뜸해졌고, 사귀는 사람의 존재는 상대적으로 여자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적게 만들고 있었다. 그것으로 인해 나는 묘한 허전함을 느끼고 있던 즈음이었다.

여자 친구를 만난다는 것. 반에서 수많은 여자 친구를 만날 기회가 있었음에도 난 그 기회를 잡지 못했다. 그건 내게 너무 어려웠다. 하지만 어느 날, 이렇게 한순간에 내겐 '여자 친구'가 생기게 되었다. **She Said**

나는 그렇게 여 자 친구들을 만 났 다

벌 씩 4학년이 되어버린 지금 내 주위 가까운 친구들을 떠올리고 우리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를 되짚어보는 일은 흥미롭다. 4년에 걸친 기간동안 묶이고 묶인 그 관계들을 하나하나 기억해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지라도, 같은 전공을 가져 수업을 같이 들으며 자연스럽게 친해진 친구들 혹은 비슷한 고민과 지향으로 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 생활의 많은 부분을 그녀들과 함께하거나 그녀들에 의해 채워지고 있다는 것은 떠올리기만 해도 이제는 내게 힘이 된다. 그러나 신기하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신입생 때 반에서 만났던 친구들은 이 중에 없다는 것이다. 새로운 사람들을 가장 많이 만날 것 같았던 신입생 때, 그 때 만났던 여자친구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궁금해진다.

입학하고 처음 반에서의 생활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어리둥절했던 것 같다. 모든게 새로운 대학생활이 정신없기도 하였고, 각자 다른 공간에서 살다가 갑자기 한꺼번에 만나게 된 다양한 친구들과의 관계맺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었다. 하지만 좀처럼 서로의 관심사나 고민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알고 싶고 나누고 싶었지만 그러한 소통은 자연스런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란 만큼 나의 바람만으로는 힘들었던 것 같다. 당시의 나의 소극적인 태도도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리버리한 한 명의 새내기로서, 또한 처음 알게 된 사람들과 살갑게 이야기를 나누거나 쉽게 마음을 열고 친밀한 관계를 적극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다가가고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사실 감이 잘 오지 않았다. 그렇게 저렇게 조금은 외로운 1년을 보내고, 같은 반의 한 여자선배의 제안으로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곳엔 많은 여자친구들이 있었다. 여자 선배들도 물론. 이 곳에서도 처음엔 조금의 낯설이 있었지만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았다. 나는 그녀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그럴수록 전에 쉽게 접해보지 못했던 하지만 내 속에서 묵직하게 엉켜있던 뉘즈 모를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리는 일종의 개운함을 경험하게 되었다. 특별히 적용하려 애쓰지 않아도 내 고민들을 해소하면서 그와 동시에 두 배의 고민들을 받아 안으면서 그 공간은 나를 끌어당겼고, 입학한 후 처음으로 어떤 안정감을 느끼게 해 주었다. 드디어 나도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

었던 것이다. 그것은 분명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나누었던 나의 여자친구들과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이라. 이 사실이 너무도 소중한 절대 부인할 수 없다. 그것은 우리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진정한 시작이었고 그렇게 나는 '대학생활'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반'을 생각한다. 서로 다른 관심과 생각과 꿈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한데 모여 있는 곳, 그래서 더욱 어떠한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곳. 하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 함께 할 수 있는 이들이 '있음'과 동시에 또 다른 지향을 찾아가는 이들은 끊임없이 다른 것을 갈구하게 되는. 내가 그곳 밖에서 나의 공간을 찾았듯이 새



내기 때 만났던 그 여자친구들도 자신의 공간을 찾았거나 찾아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4년이라는 시간과 한 울타리 안의 다른 공간이 오묘히 집합되면서 그녀들의 웃고 있는 모습이 희미하게 떠오른다. 같은 시간에 속해 있더라도 어쩌면 우리는 너무도 다른 세계를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어디서든 힘내라고, 행복하라고 말해주고 싶다. **She Said**

성폭력에 반대한다는 것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 중 90%는 당연히 성폭력에 반대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그 중 50%는 성폭력에 대한 책이나 글 한 두개쯤은 읽어봤을 것이다. 여성학 교양수업에서 공부를 했을 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중 50%는 '성적자기결정권'이나, '피해자중심주의'라는 말을 듣거나, 말해보거나, 알고 있을 것이다.

성폭력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고 있고, 많이 듣고 있다. 그리고 당연히 성폭력은 반대해야 할 것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이들이 성폭력에 반대함에도 별로 달라지지 않는 상황들은 무엇 때문일까. 그리고 성폭력에 반대한다는 것이 진정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혹시 '성폭력에 반대해...' 하지만 하고 뒤에 붙는 많은 말들이 생략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성폭력에 반대해. 하지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을 거야

성폭력에 반대해. 하지만 밤늦게 돌아다니는 여자도 문제가 있지 않잖을까

성폭력에 반대해. 하지만 가해자도 인권이 있는데 실명공개하느니 너무 하자나.

성폭력에 반대해. 하지만 이 것은 절대 성폭력이 아니라고

성폭력에 반대해. 하지만 내 친구는 정말 믿을만한 여자. 성폭력 가해자가 아니라고

성폭력에 반대해. 하지만 둘이 사귀던 사이였는데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돼

성폭력에 반대해. 하지만 술 취해서 기억도 안 나는 일을 책임져야해?

성폭력에 반대해. 하지만 내 여자친구가 나를 남자한테 그런 일을 당한대면 못해

성폭력에 반대해. 하지만 뭔가 잘못된 일이 있어서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닐까

성폭력에 반대해. 하지만 남자를 잠정적 가해자로 보면 안 되니까

성폭력에 반대해. 하지만 내가 성폭력인지 모르겠으니까

너무도 당연한 말이겠지만, 성폭력에 반대한다는 하나의 말로써는 도저히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할 수 없다. '성폭력에 반대해' 이후에 생략된 말들이 오히려 더욱 중요하게 위치하고 있으며, 많은 경우 그 것이 성폭력에 반대한다는 당위적인 명제와 부딪침과 균열을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진정으로 성폭력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성폭력! 그거 너무 기준이 애매모호한 거 아니야! 라고 팔짱끼고 저 멀리서 불평을 하기엔 성폭력과 당신은 그렇게 떨어져 있지 못하다. 당신이 아침에 눈을 떠서, 학교에 오면서, 수업을 들으면서, 밥을 먹으면서, 연애를 하면서, 친구들을 만나면서, 술을 마시면서, 집에 되돌아가면서...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고 총체적인 삶 속에 깊이 놓여져 있는 것이 성폭력이라는 것이다. 이를 몰라도 되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행복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모르는 것이 더 이상 자량이 될 수 없음은 확실하다. 또한 모른다고 해서, 모른다고 생각해보려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신이 겪은 그리고 겪고 있는 성폭력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일. 자신이 가한 성폭력이 무엇인지 인지하는 일. 어떤 상황이 성폭력일 수 있을 지를 깨달을 수 있는 감수성을 키우는 일. 성폭력이라는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면서 섬세하게 짚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는 일. 이는 절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불행하게 혹은 행복하게 우리 모두의 과제일 수밖에 없다.

'성폭력에 반대 한다'는 선언만으로는 2% 혹은 99% 부족한 지금이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성폭력에 반대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 수 있는지, 성폭력이란 무엇인지, 무엇을 성폭력으로 명명하는 지 혹은 명명해야하는 지, 그 것이 전체적인 나의 삶과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이 엄청난 반성폭력의 여정을 어설프게나마 이제 다시 시작해보려고 한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성폭력에 반대하는 당신은 물론 함께 해주어야 한다. 생각보다 쉬운 여정이 될 지, 모질고 구질구질한 여정이 될 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가벼운 시작을 위해서 '모르는 것이 더 행복해'라는 생각만큼은 잠시 접어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See Said**

여량?
rain@yonsei.ac.kr
명량한 페미니스트



자신이 겪은 그리고 겪고 있는 성폭력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일. 자신이 가한 성폭력이 무엇인지 인지하는 일. 어떤 상황이 성폭력일 수 있을 지를 깨달을 수 있는 감수성을 키우는 일. 성폭력이라는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면서 섬세하게 짚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는 일. 이는 절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불행하게 혹은 행복하게 우리 모두의 과제일 수밖에 없다.

반성폭력 학칙 개정이 시급하다!

그러나 그전에 대책위에 대한 대책 마련이 더욱 시급하다!

**성폭력에 대한 지각없는,
비민주적인 대책위 운영을 규탄한다!**

김중기 교학부총장은 책임 지고 성폭력 대책위원장직을 사퇴하라!

지난 15대 총여학생회에 이어, 제 16대 총여학생회는 반성폭력 학칙개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성폭력 학칙 개정은 너무나 시급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인식은 2000년 반성폭력 학칙이 제정되어서 시행되어온 4년 간, 학칙에 따라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면서 학칙의 허술함을 여실히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에 총여학생회는 앞의 자보에서 설명한 많은 구체적인 개정안들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학칙개정을 이야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학칙개정이 다 무슨 소용일까, 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나가요? 반성폭력 학칙 개정을 논의하고 개정된 학칙을 운영하는 주체인 성폭력 대책위원회의 현실을 살펴보고 있으면, 이런 어이없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물론 이 교수가 학생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발언을 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사소한 문제까지 물고 늘어지면 교수들이 사기가 저하 되어서 어떻게 수업을 하겠나. 이분은 기본적으로 교육자이니 교육자의 자존심을 함부로 건드리서는 안 되지.

교수위원1: 옳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미안하다는 표시는 하고 있으니 이 정도에서 시간을 마무리 짓는 게 좋겠네요.

학생위원: 하지만, 분명히 그 교수님의 발언으로 성적 불쾌감을 느낀 학생이 존재합니다. 또 그 이후 교수님이 수업에서 그 일을 다시 언급하면서 "사소한 일에 예민한 학생들 때문에 무서워서 수업을 못하겠다"는 등, 신고인을 궁지로 모는 발언으로 2차 가해도 가했지만, 교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 전혀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사건에 대한 사과문만 하더라도 교수님이 자성의 내용을 직접 쓰신 게 아니라 상담실에서 작성한 내용을 '수락' 하는 형식이었으니 정말 반성하신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애써 문제제기한 피해자가 수업에서 위축되는 처지와 그 발언으로 인한 불쾌감의 기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당연히 더 강력한 사과가 요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 학생들이 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정도의 사과문도 훌륭하지. 그리고 그렇게 원칙만 강조하면서 일을 해서야 어디 처리되는 일이 있겠나. 그리고 사실 교수가 수업시간에 농담 좀 한 것 가지고 이렇게 일일이 문제제기하는 게 과연 옳은지 생각해 봐야지. 물론 잘 한 거라곤 볼 수 없지만 이렇게 일일이 성폭력이나 뭐네 하면서 학교 시끄럽게 해서 좋을 게 뭐가 있나. 이번 사건은 그냥 이정도로 마무리 하고 나가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가 봐야 하니 그만 회의를 마쳐야겠네.

위 에피소드의 대사들은 물론 가상으로 꾸며진 것입니다. 그러나 허구는 아닙니다. 2003년 한 해 동안 열렸던 연세대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에서는 말 풍선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말만 조금 다를 뿐, 위와 같은 상황이 번번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위의 예에서도 단적으로 보여지듯이 현재 성폭력 대책위의 위원들은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회의 자체가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유명한 이야기가 된 몇 가지 발언들이 있지요.

방학이면 교환학생 온 여자애들이 벗고 다니서 격정이다(웃음)

남자에 집에 따라간 여자애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명백한 2차 가해에 해당하는 말들이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모인 대책위의 테이블에서 위원들의 입을 통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제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반성폭력 학칙에는 성폭력 사건을 다룸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인 '피해자 중심주의-피해자 보호' 원칙이 명백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2차 가해에 해당하는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는 대책위원들이라 보니, 그 원칙을 구체적인 상황에서 해석하고 적용할 의지와 소양이 없는 것입니다. 총여학생회에서 제출한 학칙 개정안에 원칙으로만 명시되어 있는 조항들을 구체적인 지침으로 보완하는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지침으로라도 지키게 하는 수밖에, 인 상황인 것이지요.

현행 학칙에 원칙적으로는 명시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이 외에도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대부분의 민주적인 회의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원칙은 현

행 학칙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초등학교 학급회의 시간에도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3년에 열렸던 몇 차례의 성폭력 대책위에서는 단 한번도 의결이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의 말 한마디로 항상 상황은 종료되곤 했지요.

물론 학생위원들은 대책위 테이블에서의 교수위원들의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 부족, 비민주적인 회의 진행을 개탄하고 지적하려 합니다. 그러나 학생위원과 교수위원은 동등한 대책위원의 자격을 학칙 상 보장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 위원들은 교수-학생 간 권력 관계 속에서 학생위원들을 대합니다. 학생위원들의 말은 '아직 뭘 잘 모르는 학생의 말' 정도로 치부되며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나열한 태도는 그 누구에게서 보다 현재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중기 교학부총장에서 가장 단적으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가해자 중심의 사회에서 성폭력 피해를 이해하고 사건을 해결한다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대책위원장은 '바쁘다'며 회의를 중단 시키는 어이없는 모습을 보이기에 한 전례가 있습니다. 물론 회의를 끝낼 때도 정회해 필요한 의결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의 대책위라면 과연 학칙을 제대로 개정할 수 있을지도 의심스러울 뿐더러, 설명 학칙을 개정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개정안을 제대로 지킬지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대책 위원들부터 성폭력 사건 해결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 민주적 의사 결정원칙을 지킬 것을 명시하는 내용, 학생위원의 동등한 의결권을 보장하는 내용, 그리고 이런 명시된 원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대책위원회에 대한 징계를 내리는 내용을 학칙 개정안으로 통과시킨다 한

들. 어차피 지키지 않으면 상황은 마찬가지가 될 텐데요.

원칙적으로 생각해보면, 학생 역시 학교의 주인이라는 점에서 총장 직선의 요구가 당연하듯이, 대책위원들 인사에도 학생이 의견권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성폭력 사건 해결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 상담기관의 자문과 검토가 대책위원의 인사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재 대책위원은 대부분 '당연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교학부총장이 대책위원장을, 그리고 학생복지처장, 여학생처장, 대학원 교학처장이 대책위원을 맡게 되어 있어, 애초에 총장 선거 이후 총장이 실처장들을 임명할 때에 대책위원회 구성이 이미 결정되는 체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성에는 의의가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에 관한 것이든, 가해자 징계에 관한 것이든 대책위원회의 결정이 학내 행정에서 실효를 발휘하려면 실제 학내 행정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실처장들이 대책위원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 현재 연세대 학사행정의 현주소이니까요.

그렇다면, 총장 직선과 더불어 실처장들을 임명할 때 학생들이 의견권을 가져야, 원칙적으로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런 학생들의 요구는 학교 측에는 '짜알도 안 먹히는' 요구가 되겠지요.

원칙적인 입장은 있지만, 운동은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더구나 이 사안은 '성폭력 대책위원회'에 관한 것입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사건이 신고 되면 성폭력 사건은 대책위에서 논의되고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무엇보다 피해자의 고통이 걸려 있습니다. 대책위에 대한 우리의 요구가 원칙적이되 현실적이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당장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상황이 '시급

히 바뀌어야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실효성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여학생회는 대책위원장 사퇴 운동을 제안합니다. 대책위원 인사에 있어 직접적인 의견 반영이 어려운 상태에서 대책위원들을 각성시키는 방법은 학생들이 성폭력 대책위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 없는, 비민주적인 운영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제대로 운영하라는 강력한 경고를 보여주는 것뿐이라는 현실적인 판단에서 말입니다. 물론 대책위원들의 물리적 행동에 대한 학생들의 감시와 분노가 대책위원장 사퇴라는 단발적인 구호로만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의 대책위원장을 사퇴시킨으로서 강력한 경고를 보냈는데도, 이후 4월에 총장 선거가 진행된 후 새로운 실처장단이 구성되고, 그에 따라 새로운 대책위가 구성되어 또 다시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의 모습을 보인다면 대책위원들에 대한 학생들의 지탄과 경고는 계속될 것입니다.

성폭력 대책위원회 대책위원장인 김중기 교학부총장은 성폭력에 대한 지각없는, 비민주적인 대책위 운영에 책임지고 대책위원장직에서 사퇴하라!

See Said

여학생 수첩이 왔다!

여학생 수첩이 왔다!

쓸데없는 정보와 일정으로만 가득한 다이어리에 지치셨나요? ^^
여학생들만을 위한 여학생 수첩이 여기 있습니다!
힘이 되는 여성주의 명문, 생리주기 달력, 생리통을 위한 팁에서 여성학 책, 가볼 만한 카페, 타로카드 보는 2004년 별자리 점, 여학생 휴게실 지도까지..
휴대는 간편하고 내용은 알찬,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여학생 수첩,
얼른 손에 넣고 싶지 않으신가요?
만화가 이향우님의 상큼발랄한 우주인 이미지까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학생 수첩은 학생회관 3층 총여학생회실로 오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올바르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여 성주의에서 사용되는 많은 개념들은 양남의 칼이라고 불린다. 내가 쓰면 훌륭하지만 다른 사람이 쓰면 위험한, 사실 그건 사람들이 그걸 처음부터 왜곡시켜 받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상하게 써도 같은 걸로 받아들이 주기 때문이다.

이성연애를 하는 여자친구들, 특히 나름대로 진보적이라는 남자애와 연애를 하는 여자친구들 중 몇몇이 공통적인 고민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 '개는 내가 다른 남자애랑 친해도 별로 신경쓰지 않는 데, 나는 개가 다른 여자애와 친하면 기분이 나쁘다' 라고, 그것이 고민이 되는 건 '정치적으로 올바른 연애'라는 상에 남자애는 들어맞는데 자신은 들어맞지 않는다는 열등감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위의 예야 꽤나 드물지만, 좀더 넓혀서 정치적으로 올바른 무엇을 이야기할 때 아래와 같은 경우는 꽤나 많이 나타난다. 남자애가 정치적으로 보다 올바른 듯한 모습을 보일 때, 여자애들은 뭔가 답답한 기분을 느끼곤 한다. 내가 잘못된 건가, 재는 잘 하고 있는데 내가 문제인 건가.

얼마 전에 나온 '성폭력을 다시 쓴다'라는 책에서 정희진 씨는 인권을 맥락적,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정의했다. 많은 성폭력 가해자들과 그 동조자들은 가해자 공개를 인권침해라고 주장한다. 아니, 인권이 침해되는 것은 사실이다. 대부분의 경우 가해자는 사실 별로 그렇지 않지만 어찌됐건 인권침해가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권이 상충할 때 그 둘은 똑같은 인권으로 인식되어야 하는가. 다른 사람을 억압함으로써 보장받는 인권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인권은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세상의 많은 개념들은 다들 보편적이지 않다. 아니,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있기는 있을까. 애초에 인권이라는 것이 소수에게만 적용되도록 만들어졌는데, 이제와서 인간의 범주가 넓어졌다고 해서 그 인권을 적용받는 건 아니다. 아니, 그러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래서 안 된다. 특정 조건에 있는 사람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개념이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될 리 만무하다.

똑같이 인권이라고 불리더라도 어떤 상황에서 누구의 인권을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그것들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수많은 영역의 수많은 개념들에도 적용된다.

정치적으로 올바르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베를린의 여결들'이라는 영화에서 반 세계화 집회를 준비하던 그룹의 남성들은 이렇게 말한다. '어차피 우리는 절반의 진보밖에 될 수 없다.' 물론 절반의 진보라는 건 거짓말이다. 그들, 그리고 나는 남성일 뿐 아니라 이성애자이고 비장애인이니까, 절반이라는 것조차 사실은 굉장히 거만한 말이다. 공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있듯이, 더 유리한 조건에 있을수록 '정치적으로 올바르긴' 쉬운 일이다(우스갯소리). 그리고 더 유리한 조건, 위치에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정치적으로 올바를 수 없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것은 단지 '옳은 행동을 하는가'라는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 누가 무슨 행동을 하는가'라는, 극도로 상대적이고 맥락적인 질문에 관한 개념이다. '누가'라는 질문은 그 행위자의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성찰을 요구한다. 남성이 담배를 피우는 것과 여성이 담배를 피우는 것은 그 자체로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어떤 상황에서'라는 질문은 그 행동이 이루어지는 맥락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다. 여교사에게 술을 따를 것을 요구하는 남교감의 행위를 단지 '윗사람에 대한 예의'로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여성에게 술시중을 요구하는'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남성들이 그토록 당당하게 여성주의를 이야기하고, 혹은 다른 정치적 입장을 이야기하고 혹은 비판할 수 있는 이유는, 스스로에 대한 성찰 부족, 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어떤 남성들은 '남성도 가부장제의 피해자다'라고 할지도 모른다. 혹은, '나는 다른 남성들과는 다르다'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남성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기득권을 없애주지는 않는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남성은 이미 가부장제의 수혜자이다. 의도와 상관없이 남성의 존재 자체가 억압이 되는 여성들도 있다. 그에 대한 성찰 없이 '옳은 말'만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마초와 다를 바 없다. **She Said**



이스트?

어쩌다 이 편으로 굴러 들어와서 지금은 관악여고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심하고 편협하고 게으른 남자아이. 가장 자신 있는 것은 자보 불이기와 맨집 똑같이 따라하기 이간질.



본지의 생각과 전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재미있게, 또는 외람되게 미디어 읽기

음, 고정 코너의 첫 회다.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것은 참으로 두근거리는 일이다. 하지만 자신의 이름을 걸고 글을 쓴다니 부담스럽기 짝이 없다. 특히나 첫 회이기 때문에 그 부담은 더욱 크다. 첫 회의 글이 읽을 만 하느냐 읽을 만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결정되는 것이 고정 코너의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이다. 물론 첫인상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내 입장에서는 첫 회의 중요성이 지나치게 부각된다면 좀 불공평하지 않느냐, 라고 항변하고 싶기도 하지만 그거야 내 생각이고 음음.

아무튼...이건 첫 회다. 어떤 방송 프로그램이나 신문이나 잡지에서든, 심지어 수업에서도, 만나자마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지는 않는다. 진짜 그런 건지 겉으로만 그런 척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만나서 반갑다는 인사, 간략한 소개, 앞으로 어찌어찌 하겠다는 계획 등등을 체계적으로 혹은 난잡스럽게 풀어놓는 것이 관례다. 교수가 첫날부터 출석 딱 부르고 수업하겠다고면서 칠판에 필기 가득 해 보라 돌아버리지. 그러므로 관례대로라면 이쯤에서는 간략한 소개와 계획 따위가 나와야 마땅하다.

하지만, 잠시만 제목에 주의를 기울여 주기를 부탁한다. 딱 보자마자, 코너의 성격이 너무나 잘 드러나지 않는가? 아, 이렇게 말하면 또 '뭔 제목? 본지의 생각과 전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저게 제목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제목은 그 아래줄에 있다. <재미있게, 혹은 외람되게 미디어 읽기> 말이다. 뭐야... 미디어 읽기라니, 열라 촌스럽대. 라면서 킬킬대고 있을 당신, 흥, 안 봐도 비디오다.

그렇지만 한 번 생각해 보라. 미디어 재미있게 읽기 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성주의적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닌 이들에게도 신문이나 잡지나 TV나 라디오를 재미있게 보고 듣는 일은 무지하게 힘든 일이란 말이다. 내말이 믿겨지지 않으면 지금 당장 가까이 있는 신문을 집어 들고 정치사회문화경제스포츠주식건강과학도 서연예사실칼럼면을 훑어보거나, TV 리모콘을 들고 전원을 눌러 뉴스를 보거나, 가까이 있는 컴퓨터를 켜고 브라우저 창을 연 후 다음이나 네이버나 엠파스나 야후 등의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 혹은 '미디어'를 클릭해 보라.

'GOOD NEWS'가 몇 개나 되는가? 뭘 하는지도 잘 모르겠는 국회는 의석수를 27개나 늘리기로 결정했고 (오호 통재라), 열평해 보였던 유차원 천장이 무너져서 어린애들이 다쳤고(정말 마른 하늘이 무너지는구나), 영국 정보기관은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의 전화를 도청했고(장하다 영국), 외환은행에서는 직원들에게 핸드폰으로 해고 통보 문자를 날렸다 하고(오악 이 청년실업인구가 50만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에 뭘 날벼락이냐), 기업, 산업, 국민, 한미은행은 경영난을 해소하겠다고면서 수수료를 깎달라 인상하고 있다고 하고(우리은행도 곧?), 정몽준 씨는 재산이 25억도 아닌 2567억이라고 하고(나 원 참, 한숨 한번 쉬어 주고, 올해 연세대학교에서 발행한 졸업앨범 중 한 권의 앨범에 학교 이름이 '이화여자대학교' EWHA WOMANS UNV 라고 적혀있었다고 하고(으하하하, 이걸 웃어도 괜찮은 일인가? 좋은 뉴스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 정도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훨씬 적지 않은 거. 물론, '난 저것들 다 좋은데?' 라고 말한다면 할말 없지만.

나름대로 자신의 삶을 여성주의적으로 구성해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미디어는 더더욱 가난하다. 매춘, 윤락, 원조고제, 정신대, 미망인, 동성연애, 호모 등등, 감각 기관에 의해 발견될 때마다 '정말 왜 이러시냐'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잘못된 용어 사용에서부터 시작하여, 기존의 남성성-여성성 구도에서 1mm도 나아가지 못한 '화성여자, 금성남자' 류의 이야기들, '성공한 남성' 뒤에 꼭 따라붙는 '출중한 내조', '아무리 바빠도 애들 밥은 꼭 차려주고 오지요'라며 생글생글 웃는 여성 CEO, 끝없이 반복되는 모성 신화, '여자의 적은 여자' 따위의 소리, 이제는 여성상위시대라는 허무맹랑한 주장, 성적 소수자에 대한 고민 없음, 외모중심주의, 연애중심주의, 결혼중심주의, 아아, 한꺼번에 떠올리려니 속이 메스꺼른다. 이쯤에서 그만하자. 헉헉.

그러다 보니, 지금 위에 열거한 것들을 보며 괴로워하고 있을 당신에게, 그리고 괴로워하고 있는 나에게 더 이상 미디어가 주는 것을 그대로 읽는 것이란 별 의미가 없게 된다. 왜 보기 싫고 읽기 싫은 것 읽노라고 내 시간들이고 내 노력들이고 내 굴치 들어가며 고생을 한단 말인가. 그러려면 그냥 안 읽고 안 보는 게 훨씬 속편하고 좋을 일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애를 진뀌서 보려고 노력하는 건 어떨까? 음, 좀 외람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이라고 서두를 꺼내고는, 왜 그것들이 볼 보기 싫은지 조목조목 이야기해 보면서 '이씨, 한번만 더 그래봐, 혼내 줄 까야'라는 경고를 날려 주는 것 재미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다음 달부터 이 코너에서는 TV의 뉴스 프로그램과 시사교양프로그램 등등과 온갖 신문, 잡지, 인터넷 매체 등등의 기사를 중에서 그야말로 워스트라 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외람되게 뒤집어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궁리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자는 모르겠지만, 몇 가지 눈여겨보고 있는 것들이 있기는 하다.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것만 살짝 말씀드리자면,

오보에는 너그럽고 사과에는 엄격한 학내 언론사들, 열심히 준비한 행사 취재해 가서는 행사 취지와 전혀 다른 내용의 기사로 지면을 채우는, 작년엔 물어본 것 올해 또 물어보고 올해 물어본 것 내년엔 또 물어볼, 아무리 학생들이 안 읽어도 그렇지, 자꾸 이러시면 곤란하시단 말이다. 곧 새학기도 될 텐데, 올해는 또 어떤 기막힌 기사를 내보낼지 기대하며 지켜보리라. 말할라.

오늘은 여기까지다. 위의 내용을 딱 읽은 후, 항의 혹은 제보를 하고 싶으신 분, 그리고 (아마도 없으리라 믿지만) 인사 혹은 격려를 하고 싶으신 분, 총여학생회였다가 투덜대지 마시고 나에게 투덜대 주시길 부탁 드린다(메일 주소는 neul@yonsei.ac.kr 이다). 빠르고 성실하고 진실된 답장은 장담하지 못하겠지만 말이다. 하핫 See Sud

늘? 만능 귀염둥이로 불리는 여성주의자
'학교보다 백배 좋은 곳은 야구장. 오야 봄이 왔어요'



가는 영화는 아니라 해도 그 진행과정과 결말이 다소 예상 가능했다 해도, 8명의 여인들이 2시간 가까이 스크린을 꽉 채우는 영화를 얼마나 오랜만에 만났는가.

어떤 질서에 균열을 내는 비밀을 가진, 다소 속물스러우면서 순진하고 아무지연서도 하술한 8명의 여인들을 보며 우리는 충분히 즐겁다. 각자의 개성에 맞춰진 의상과 악세사리, 세트 색감의 조화는 두 시간여 동안 밀폐된 공간인 집을 지루할 틈도 없이 풍성한 볼거리로 만들어주고, 그 선명하고 대담한 색감에 딱 어울리는 8명의 캐릭터들은 마르셀의 죽음을 가끔씩 잊어버릴 만큼 보는 이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그녀들이 각자의 삶도 '남자 빼고' 때로는 유쾌하게, 때로는 거침없이 받아칠 수 있으리라 생각해본다.

8명의 여인들이 손을 손을 잡고 이 영화를 보러 가는 재밌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본다. 나 또한 친구들과 함께 8명에서 또 한 번 영화를 보러갈 것을 약속했다.

See said

이갈? 즐거운 페미니스트
연세대학교 문화협동과정 석사 재학 중

스포일러 경고-아직 영화를 안본 분들은 이 글을 읽음으로써 중요한 반전과 결말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녀’들의 비밀을 들어보세요

유쾌하고 함있는
그녀들의 위선과 위반
(8명의 여인들)



8명의 여자가 있었다. 저마다 다른 꽃의 이미지를 가진 개성 강하고 주장 강한 8명의 여인들. 그리고 이 영화의 감독은 한국에서도 <스위밍풀>로 잘 알려진 프랑스와 오종이다. 매력적인 감독의 매력적인 이야기. 게다가 개봉이 2년이 넘게 늦춰지면서 관객들을 더욱 애달게 했던 영화 <8명의 여인들>. 솔직히 말하면, '오종의 영화'를 기대하고 2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려 극장을 찾은 관객들이 그리 흡족할 만한 영화는 아니다. 오종의 초기작들, '워터 드롭스 온 더 버닝 락' (Water drops on the burning rock)과 같은 영화에서 보여주었던 그의 '빛나는' 연출이 이 영화에서는 그리 눈에 띄지 않

는다. 영화가 자랑거리로 내세우는 8명의 노래와 춤도 스토리 전개 속에 녹아들지 못하고 불쑥불쑥 튀어나온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여러 면에서 흥미롭다.

프랑스의 내로라하는 배우들인 8명의 여인들은 이 영화를 통해 베를린 영화제 '단제연기상'을 수상했다고 한다. 그만큼 이 영화는 8명의 여인들, 그 중 누구를 주인공이라 할 수 없는 8명 모두의 영화다. 영화가 흥미로운 점은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

이야기는 이 집의 유일한 남자 마르셀의 죽음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영화는 두시간 가까이 아무도 다녀가지 않은 이 집에서 8명의 여인들 중 범인은 누구인가를 찾아내는 과정을 담고 있다. 하지만 얼핏보기에 마르셀이 테러티브를 주도하는 듯한 이 영화는 실상이 '골 때리는' 8명의 여인들의 것이다. 마르셀은 영화 내내 한 마디의 대사도 하지 않고 실제로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이미 '없는' 존재이다. 이 영화의 포인트는 '범인이 누구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다. 영화는 마르셀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통해 8명의 여인들이 저마다 갖고 있었던 비밀(혹은 위선)을 털어놓게 되는 과정에 주목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중산층 가정의 위태로움, 이성에 중심 가족 제도의 허상, 이미 힘을 다한 가부장적 권위와 같은 우리 사회의 허울뿐인 규칙들을 알아낼 수 있다. 그리고 멋진 여배우들의 (이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개인기도 이 영화의 보너스다. 이 영화가 아니었다면, 마음껏 망가지는 이자벨 위제르의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었겠는가!

8명의 여인들은 한 편으로 전형적이다. 50대 부유한 중산층 여인인 제비, 그녀가 부양하고 있는 어머니와 히스테릭한 동생, 엄마 앞에서는 사랑스럽고 자기들끼리는 (어른들이 생각하기에) '그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해보고 싶은 것도 해본 것도 많은 두 명의 딸, 어느 집안이나 있을 법한 딸뻘이 고모, 그리고 두 명의 하녀.

그러나 그녀들이 마르셀의 죽음 앞에서 각자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털어놓는 비밀들은 그녀들 각자가 우리 사회의 규격화된 (이성에 중심의 가부장적 가족 제도 안의) 질서를 위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오종이 늘 건드리고 있는 이성에 중심 사회의 성에 대한 금기나 중산층 계급의 위선이 빠질 수 없다. 제비는 아버지의 동업자와 애인관계고 큰 딸은 (아직 결혼제도 안에 편입되지 않은) 제임슨을 했으며, 새로 들어온 하녀 루이스는 마르셀과 내연의 관계이고 고모와 오랜 하녀 사별은 또 다른 애인 관계다. 루이스는 한국 사회에서도 이제 공공연한 이슈가 된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 40여 년을 서로만 사랑해야한다는(혹은 남자만 '외도' 해도 된다는) 일부일처제 가족제도 규범을 벗고 사별은 동성애 정체성으로 이성에 사회의 금기를 위협한다. 제비의 동생은 형부를 좋아하고, 제비의 어머니는 재산을 가지지 못해 안달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반들은 실은 누구나 하고 있는 것이며, 누구나 그럴 법하다 생각하는 것들이며, 현재의 '정상가족'이 커버할 수 없는 어떤 '진실'들로, 제도의 허상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그리고 그 허상의 중심에는 아버지 마르셀이 서있다.

영화의 결말에 마르셀의 죽음이 막내 딸이 꾸민 일이었음을 밝혀지고, 그 모든 비밀을 듣는 마르셀은 스스로 목숨을 끝

는다. 딸이 다섯인 친구네 집은 어머니까지 여자 6명에 아버지만 남자라 아버지만을 따로 논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집 아버지뿐이라, 실상 현재의 가부장제 안에서 생계부양자로서 집안의 가장으로서 아버지의 존재란 참으로 쓸쓸하고 그 권위란 우스운 것이다.

알면서도 직접 확인하고 싶지 않은 진실이 있다. 애써 덮어두고 싶은 비밀이 있다. 모든 비밀을 알아버린 마르셀이 할 수 있는 행동이란 당연히 자살뿐이다. 그와 함께 이 집안을 가까스로 지탱하고 있던 겉으로는 더없이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던 가족은 무너지고 만다. 그녀들이 처음 마르셀의 죽음 사건을 접했을 때, 겉으로 과도하게 슬퍼하면서 마르셀의 죽음을 자체보다 재산의 분배를 걱정했던 것처럼, 이미 권위도 위상도 없었던 중산층 가부장의 허상은 그렇게 사라진다.

영화는 8명의 여인들이 스크린을 꽉 채우고 한 줄로 서 있는 유명한 장면에서 페이드 아웃된다. 영화의 시작은 그녀들이었듯이 마무리도 그녀들이다. 그녀들은 이제 마르셀을 통해 묶어있었던 가족이라는 끈을 풀고 각자 다른 곳으로 떠날 수도 있고 몇 명씩 짝을 지어 또 다른 가족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영화가 영화적 완성도에 있어 다소 부족했다해도, 오종 영화 중에서 그리 수위권에 들어



OT에서 생긴 일

단단? 98학번으로 사회학 심리학을 전공
하고 여성학 자치도서관 페미니리
(Feminery)에서 활동한 김이다명입니다.
운 좋게 여성주의를 만나, 오랜 꿈이지만
미안하기만 했던 만화가 되기의 목표와 줄
거리를 찾았습니다. 반가워요.

4

싸가지 없는 후배 되기



~성적 신체적 자기 결정권을 위해서는?



10

무서운 선배 되기



c a r t o o n



당신은 순정만화를 좋아한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 여성에 대한 편견과 가치 부여에
관하여

만화는 여러 장르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순정, 액션, 스포츠, 코믹, 판타지, 역사, 요리, 추리, 학원 등등. 여러분은 열거된 다른 단어에 대해서는 딱 맞는 이미지와 의미, 그리고 어떤 만화가 해당되는지 금방 떠올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요리에 <미스터 초밥왕>이라든지 추리에 <소년 탐정 김전일>을 떠올리셨다면 제대로 떠올리신 것이지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순정'에 대해서는 합당한 이미지를 떠올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떠올리셨다고요? 설마 꽃만발 화면에 나폴나폴 치마 여주인공과 깃털 달린 모자를 쓴 왕자 혹은 기사의 이미지입니까? 사랑에 죽고 사는 여주인공의 눈물 뿌리는 이야기를 떠올리셨나요? 아주 틀린 이미지는 아닙니다. 어쩌면 그 용어에 맞는 이미지는 그런 것인지도 모르지요. '순정'이라는 낱말에 맞는 이미지 말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는 틀림없

이 순정 만화를 즐겨 읽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만화를, 그것도 '순정' 만화를 좋아한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스포츠 만화를 좋아한다거나 학원 액션물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편이 쉬울 겁니다. 순정 만화를 좋아한다고 말하는 순간 사람들은 아하, 하는듯한 시선으로 여러분을 바라볼 테니까요. 아하, 이 아이는 그 같지도 않은 사랑 타령이나 읽는 아이군. 하고 말이지요. 여기에는 뿌리 깊은 오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순정 만화는 사실상 여성 작가가 그리는 모든 만화를 총칭합니다. 순정 만화 작가로 분류되는 남성 작가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지만 극히 미미한 비율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언급한 만화 장르상의 분류에서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하셨는지요? 그렇습니다. 이상하게도 주로 남성 작가가 그리고 남성 독자들을 겨냥한 만화들은 세분화되고 그것이 하나의 단일한 장르로 인정받는 데 비해 여성 작가가 그리고 여성을 겨냥한 만화들은 그것이 무엇을 소재로 하였든 어떤 이야기를 풀어내려고 했든 모두 '순정'으로 분류됩니다. 가령 마리오 라가와의 <Just Go Go>는 테니스를 소재로 다루었고 같은 작가의 만화 <아기와 나>는 가족애를 소재로 에피소드식 전개를 해 나갔으며 유시진의 <꽃향>은 작가 특유의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람의 심리를 다룬 만화인데, 이 모든 작품들이 '순정'이라는 장르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순정이라는 단어가 '저는 당신에게 제 순정을 다 바쳤는데 어찌 이리실 수 있습니까' 등의 용법으로 쓰이는 사회에서 저 작품들은 모두 '사랑 타령'으로 이미지화됩니다. 만일 저 작품들이 가진 특징이 단일한 장르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면 저것들은 각각 스포츠 만화(가

칭), 가족 만화(가칭), 심리 만화(가칭) 등으로 분류되었을 것입니다.

혹자는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어쨌든 사랑 타령이 들어가니 순정 만화로 분류한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저 작품들에도 사랑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소재로 다른 만화들은 남성 독자들을 겨냥한 만화에도 양념처럼 등장합니다. <슬램 덩크>에도 소년이를 짝사랑하는 강백호와 서태웅을 짝사랑하는 소년이 있습니다. <베르세르크>에도 사랑 이야기는 있습니다. <공작왕>에서도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술 더 떠서 <러브 인 러브(러브 하나)>는 그것을 사랑이라 부를 수 있다면 사랑으로 뒤덮인 만화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순정 만화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순정 만화라는 분류는 사랑을 소재로 삼았다든지 하는 이성적인 판단을 전제로 한 분류가 아닙니다. 우선 우리 사회에서는 순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비하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마도 일본 여성 작가의 만화가 해적판으로 퍼들 때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을 그 순정 만화라는 분류는 현재 여성 작가가 그린 거의 모든 만화를 편입시킴으로써 만화를 보지 않는 남성은 물론 만화를 보는 남성에게까지도 그 '순정'이라는 단어의 의미로 인해 순정 만화를 '우습게' 보이게 하지요. 남성 작가가 그린 남성 독자를 향한 만화에 대한 전반적인 비판은 접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의 초점은 제대로 된 장르 분류조차 하지 못한 채 도매금으로 묶어버린 여성 작가들의 만화니까요. 여성 작가들의 여성 독자들을 위한 만화는 여성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에 의해 '순정' 만화로 무조건적으로 편입된 것입니다.

니체는 여성이 이성 부족하고 사랑으로만 사는 존재라 하였습니다. 많은 고전 철학자들에게 인간, 혹은 일반이라 함은 남성이지요. 여성은 인간도 아니고

이상하게도 주로 남성 작가가 그리고 남성 독자들을 겨냥한 만화들은 세분화되고 그것이 하나의 단일한 장르로 인정받는 데 비해 여성 작가 그리고 여성을 겨냥한 만화들은 그것이 무엇을 소재로 하였든 어떤 이야기를 풀어내려고 했든 모두 '순정'으로 분류됩니다.

일반적인 존재도 아닌 이성이 결여되고 객관성을 의심받는 존재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니체의 저러한 말은 이 글에 아주 잘 부합하는 견해인 듯합니다. 말 그대로 '순정'을 바쳐 '사랑에 죽고 사는' 것이 남성과는 다른, 혹은 남성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여성의 본질이라는 말로 들리는데요, 저것이 지금의 순정 만화 분류 기준에 적용되고 있는 편견의 대표 주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성 잡지라 분류되는 잡지나 여성을 겨냥하고 만든다는 드라마들의 내용을 보아도 그 편견은 여실히 드러납니다. 남성에게는 자아, 야망, 꿈, 미래 등이 존재하지만 여성에게는 사랑 외에는 존재하지 않고 여성이 지련 것들을 지향하려 하면 '독한' 여성이 되어 주위에서 지탄받는 것은 물론 드라마에서는 선/악 이분법 구도에서 악에 속하는 경우가 많아지며 생활 자체가 불편해집니다. 여성 작가가 다른 소재로 만화를 그려도 그것을 '순정'이 아닌 다른 하나의 장르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여성의 영역은 이성이 결여된 사랑의 영역, '순정'뿐이라는 편견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해석들에도 영향을 미쳐 사람들은 순정 만화를 읽을 때 사랑에 관한 작은 단서만 나와도 역시 사랑 타령, 팔다리 긴 주인공 얼굴을 보기만 해도 역시 사랑 타령이라고 바웃어주고 역시 순정 만화, 하고 던져버리게 되죠. 순정 만화를 읽는 사람들에게 그걸 뭐하러 읽냐? 라는 편견도 잊지 않고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작가가 여성이고 독자층이 여성이기 때문에 더욱 더 심한 비난을 받는 장르가 또 하나 있지요. 바로 귀여이의 <늑대의 유혹>을 위시한 인터넷 소설입니다. 최근 1,2년 사이에 급격히 성장한 분야라서인지 시장에서는 폭발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듯 하나 그만큼의 비난도 면치 못하고 있는 분야가



c a r t o o n



인터넷 소설입니다. 물론 인터넷 소설이 내용면에서 훌륭하다거나 모든 비평이 가당치 않다거나 하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생각해 볼 점은 있습니다. 무협지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출판물로도 있고 웹 상에서도 널리 읽히고 있지요. 책 대여점에서 만화책과 함께 대표적인 취급물이기도 하지요. 무협지의 내용은 정말로 패턴화 되어있습니다. 편하지요. 게다가 많은 무협지들의 성적인 묘사와 여성에 대한 시각은 그야말로 남성 중심적이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협지는 비판받지 않습니다. 많은 순정 만화보다 훨씬 뒤떨어지는 질을 가지고 있으며 인터넷 소설의 내용을 비판할만한 내적인 충실도도 갖추고 있지 않지만 놀랍게도 무협지는 그다지 비판받지 않습니다. 이는 우선 무협지의 작가와 독자가 남성, 특히 독자가 나이 든 남성이라는 데 기인한다고 봅니다. 그들이 이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지위는 인터넷 소설의 작가와 주요 독자인 십 대 소녀들에 비할 바 아닙니다. 그들은 쉽게 공격당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 십 대 소녀들은 너무도 공격하기 쉬운 대상이지요. 그리고 무협지는 그야말로 '영웅호색'이라는 패권적인 남성의 이상이 실현되는 장인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조금 실현도가 부족한 주류의 이상이 적나라하게 단순화된 구조로 실현되는 곳이 무협지의 세계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가치 중에는 그것의 본질이 정말로 하찮은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하찮은 가치가 '부여'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 그리고 여성이 만들어 낸 무언가, 그리고 여성이 하는 일이라고 정해진 것은 많은 경우 하찮게 여겨집니다. 가사 노동이 그렇고 대표적인 여성 직업군이라 일컬어지는 일련의 직업들이 그렇고 순정 만화가 그렇습니다. 때로 여성 작가가 쓴

소설도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받지 못합니다. 90년대에 여성 작가들의 활동이 활발해지자 '소설의 스케일이 너무 작아지는 것이 아니냐', '만으로만 침잠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식의 비판도 가해졌습니다. 많은 여성 작가들이 여성의 일상을 다룸으로써 여성 문제를 풀어내려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성적이라고 여겨지는 것, 여성이 만들어 낸 가치 등이 사소한 것으로 치부되는 사회에서 제도적인 문제, 구조적인 문제가 담긴 여성의 일상은 '스케일이 작고 안으로 침잠하는' 개인적인 문제로 환원된 것입니다.

저는 여성 작가들이 작업한 만화를 좋아합니다. 지금 순정 만화라고 묶여있는 만화들을 좋아합니다. 이것에 가치가 부여되지 않고 그저 대중한 입장에서 취향의 차이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Site Said

용?

갈래야를 자주 할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표현을 할 서전 종이 넘세 케이크, 빵을 좋아할 글쓰기와 만화는 이미 삶의 일부로 여기고 있을. 글은 무엇보다 쉬워야 한다고 생각함.

칼럼 소개

만화와 사회에 관한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좋은 만화에 대한 소개나 읽는 것을 재고해 보아야 할 만화에 대한 소개를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소재에 비해서 재미있는 글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말하자면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을 만화를 매개로 해서 풀어내고 싶은 욕심이랄까요. 이 글이 재미있지는 않아도 적어도 쉽게 읽히게 하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복한 여성주의 홈페이지는 이야기3

Back Forward Stop Refresh Home AutoFill Print Mail

Knock, Knock, Who's There ?!

도란도란 총여홈피 드디어 개장~

총여학생회가 온라인상으로 걸어옵니다.
총여학생회에 문의하고 싶을 때, 자료를 구하고 싶을 때,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때 언제든지 홈페이지를 찾아보아요
총여학생회 홈페이지에는,

- 성폭력 사건 신고 방법
- 여성학 도서 목록
- 반성폭력 이야기
- 여성 관련 즐겨찾기 페이지
- 그리고 총여학생회의 일상을 담은 친근한 커버스토리

등이 구석구석 숨어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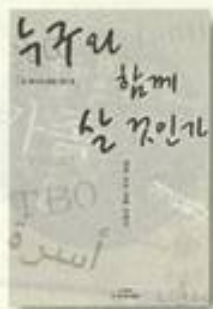
그밖에도 무엇이 있나 대문을 두드려볼까요?

총여학생회의 홈페이지는 www.yonsei.ac.kr/~ysfem으로 오시면 방문할 수 있습니다.

Internet 2004

나 이 서론이 되었다. 어리다면 아직도 한참 어리고, 배워야 할 것이 많은 나이이지만 적다고도 할 수 없는 나이. 스무 살 초반에 캠퍼스를 헤집고 다니며 영 페미니즘이라는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해야만 하는 일들에 대해 밤새워 토론하고 일을 벌이던 그 때로부터 거의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함께 일하고, 놀고, 싸우고, 애정을 쌓은 친구들도 나이를 먹었다. 그리고 언젠가 그럴 거라고 생각했지만 드디어, 결혼이 우리에게로 왔다. 여기서 포인트는 '언젠가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는 데 있다. 정확히 말해 그럴 거라고 생각만 했지, 구체적인 생각을 유보하고 있었던 우리들에게로 결혼이 와 버린 것이다.

어떤 사람과 어떤 방식으로 살고 싶어하는지가 보여주는 욕망의 정치학에 대해 생각하면서 젠더(gender)는 개인 외부의 구조가 아니라 개인 내부에서 욕망으로 주조된 구조임을 절실히 깨닫는다. '어떤 그/그녀와 살고 싶어하는가, 그/그녀에 대해 자신을 '어떤' 상대적 주체로 만드는가, '어떤' 관계의 방식에서 안정감과 욕망을 가지는가, 하는 물음들은 결국 내가 '어떤' 젠더화된 욕망을 가진 주체인가의 물음으로 귀착된다. 몇몇 친구들의 결혼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런 물음을 집요하게 던지지 않는 페미니즘이란 과연 어떤 삶의 정치학이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된다. 물론 누군가와 안정적인 친밀감을 나누고 싶은 욕망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나무랄 수야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 욕망의 끝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을 때, 그 끝을 이루고 있는 자신의 삶의 조건을 둘러보지 않을 때 인생은 단순한 진부해질 지도 모를 일이다. 여기 그 진부함을 미리 살펴보고 다르게 살 수 있는 상상력과 용기를 위한 책 몇 권을 소개하고자 한다.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새로쓰는 가족이야기, 또하나의문화 제 17호

작년 연말에 오랜만에 나온 또하나의 문화 동인지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는 '새로 쓰는 가족 이야기'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근대적인 이성애 결혼과 가족 중심의 사생활이 어떻게 새로이 재편되고 있는지를 동인들의 삶의 경험으로부터 보여주고 있는 이 책은 부분 부분이 모두 나의 삶에 대입가능한 해석들이다. 그만큼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으며, 토론 동인지의 가장 큰 장점인 자신의 삶을 돌이켜 성찰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물론 토론 동인지의 가장 큰 약점인 세대 구분의 일관성 없음 또한 여전하다. 오십대의 이야기는 우리들 부모에게 대입하기에는 너무 남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고, 삼, 사십대는 보이지 않으며, 십, 이십대의 실험은 그 조건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도 내 가족 이야기를 한 번 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득이다. 당신의 자리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쓸 수 있는 용기 한 조각을 볼 수 있다면 한 권의 책이 할 수 있는 일은 다한 게 아닐까. 특히 게이 가족에 대한 글은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우리의 욕망이 얼마나 친밀성과 가족이라는 일상으로 주조되었는지, 그러하기에 이를 문제제기하는 것이 얼마나 지난하고도 어려운 일인지를 성찰하게 한다. 그 밖의 이성애 핵가족의 삶을 행복하게 살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지만 별 다른 대안 없는 20대들의 이야기나 불안한 시대의 불안한 가족 속에서 정서를 형성한 10대들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가 재편해가고 있는 친밀성의 구조들을 경험 속에서 살필 수 있게 해 준다. 이제 문제는 우리들 자신의 욕망을 좀 더 면밀히 살펴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드는 것일 터이다.



『가족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권명아, 책세상

이 정도의 경험적 이야기를 하루 저녁 독서거리로 끝낼 수 있다면 다음으로 추천하고 싶은 책은 권명아의 '가족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이다. 국문학자인 글쓴이는 전쟁 경험 세대의 소설을 연구하면서 한국 사회의 억척 모성, 전쟁과 살벌이의 경험, 그러한 경험이 낳은 우리 시대의 트라우마에 대해 연구해왔다. 이 책은 가족에 대한 문제제기가 페미니즘의 사소한 문제제기로 인식되는 경향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는 바로 가족이 인간의 유일한 위안처로 인식되는, 인간 존재에 대한 질문임을 구체적인 텍스트들을 통해 보여준다. 가족이 '이야기' (narrative)라는 명제는 가족이 단순한 이야기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 체계 그 자체라는 뜻이다. 해석 없이 삶과 존재에 대한 표현과 의미 부여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가족 이야기'는 가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기원을 설명하는 신화이다. 그 신화를 통해 존재의 현존이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니 결국 '어떤' 가족에 대한 욕망은 자신의 존재를 설명하는 이야기인 것이다. 다시 말해 가족은 내 외부의 구조가 아니라 내 내부의 욕망과 그와 연결된 사회적 이야기이다. 글쓴이의 텍스트와 현실과 비평은 바로 이 지점에서 만난다. 그녀의 시각을 따라가다 보면 현재 가족 해체와 연애 용성을 말하는 온갖 텍스트들을 나름의 시각으로 읽을 수 있는 눈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더불어 자신의 가족 이야기가 어떻게 만들어져왔는지, 만들어 가고 싶은지를 점검해 볼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듯.

『현대가족이야기』 조주은, 이가서

가족 시리즈 삼부작을 완성하는 마지막은 조주은의 '현대가족이야기'다. 여성학자인 글쓴이의 석사논문은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책은 울산이라는 대기업 노동자 도시라는 지역(local)의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가족과 젠더의 정치학이 어떻게 총출동해 얹혀 있는지를 보여준다. 기업의 사원 교육에서 드러나는 젠더화된 가족, 기업에 대항한다고 하지만 젠더화된 가족 모델을 여전히 고수하며 협상하려고 하는 노조의 전략, 부부와 두 명의 자녀로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이성애 핵가족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높은 성비불균형, 모든 집에 동일한 검은 커튼(아근하는 남편의 휴식을 위한)이라는 구체적인 일상과 연결된다. 울산이라는 지역과 노동자 가족이라는 맥락이 나와는 맞지 않는다고 치부해 버릴 일이 아니다. 문제는 맥락의 구체성이다. 이 책은 나의 맥락에서는 어떤 가족과 젠더의 얹힘이 일상과 욕망을 만들고 있는지를 탐색해 볼 수 있는 일종의 지도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문제는 결국 나의 일상으로 되 돌아온다. 너무 괴롭게 자신을 묶으면서, 정치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라고 강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러나 자신이 어떤 인간이며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일상을 해석할 수 있는 언어와 일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용기를 필요로 한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그럴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내가 서론이 되어 맞이하는 이 황당함의 무게가 다른 방식의 에너지로 쓰여질 수 있는 당신의 서론이 될 수 있다면 더욱 좋겠다. **See Said**

김민현경? 영페미니스트 문학기획집단 '달과 잎새' 멤버



오랜만에 글을 쓰게 되었다. 글쓰기는 언제나 나를 돌아보게 하고, 끝낸 후에는 뿌듯함을 남겨주기 때문에 좋아하는 일이다. 게다가 대담 고정적으로 칼럼을 쓸 수 있다니 새로운 자기만의 방을 얻은 느낌이다. 카이월드 중독자인 나로서는 새로운 마니홀피를 얻은 느낌이었을까. 첫 칼럼을 어떤 이야기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내 삶에 대해 먼저 풀어보자고 마음을 먹었다. 과연 내가 문화에 대해, 여성주의와 문화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을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활동도 그렇고, 지난 12년간 해왔던 일들을 돌아봤을 때 가장 큰 두 흐름이 '여성주의'와 '문화' 이긴 하다. 둘 다 막연하고 어려운 이야기들이다. 몇 년전에는 내가 여성주의에 공감하는지 아닌지, 나를 여성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혼란스러웠다면, 지금은 내 삶 속에서 '문화'라는 게 무엇인지 고민에 또 고민 중이다. 그저, 춤을 좋아하고 밴드를 한다고 해서 다는 아닐 것이다. 여성주의와 문화라는 두 흐름을 내 삶에서 잘 녹여내지 못한다면 내가 하는 일들은 단순히 취미에만 그쳐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엔 한 공연 기획사에서 인턴으로 일을 했었다. 워낙에 이 판에 대한 환상을 가지지 않은 채 시작하긴 했었지만, 그리고 나는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다고 자부하면서 시작했건만, 솔직히 매우 휘청거렸다. 누구도 가르쳐주는 사람 없이 처음부터 시행착오로 나뉘는대로의 철학이 있다고 자부하면서 시작했건만, 솔직히 매우 휘청거렸다. 누구도 가르쳐주는 사람 없이 처음부터 시행착오로 모든 일을 해야만 했고, 애정을 가지고 있던 배우들과도 기획팀이라는 입장 때문에 껄끄럽기만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빚 독촉 전화에 시달리다보니 점점 피폐해져갔다. 이 일만 끝나면 돈도 없고 재미도 없고 보람도 없는 이런 일은 당장 그만두리라 생각했다. 그러던 인턴생활도 어찌로 끝나고 어느 정도 마음이 가라앉은 지금은 그래도 당분간은 이런저런 고생을 두루 해보자는 생각이 다. 내가 했던 일은 문화 기획 중에서도 공연기획이었고, 게다가 아이돌 공연이었고, 게다가 배우, 스태프 뒷바라지라는 극히 작은 분야의 일이었으니까 말이다. 아직도 나는 직접 무대에 서기 전의 설레임과 그 떨림을 좋아하고, 좋은 공연 환경이 삶을 행복하고 소중하게 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호를? "두인솔"에서 글쓰고 책만들기를 배웠으며, 여성주의파포먼스집단 "페미만스"에서 몸으로 말하기를, 여성주의밴드 "아직"(2nd 가타)에서 함께 만드는 음악을 배우고 있는 중. 여성주의와 문화라는 두 흐름을 실속에서 연결시키라 고민, 또 고민.

여성주의 + 문화?!

[illegible]

최정윤, 김민아, 홍보람 등 콘서트 기획이나 페미먼스 그 배역만으로는 여성주의 퍼포먼스 전연 검토하지서 서를 할수...
이들과 연세대학교 여성주의학부를 구성된 팀으로서 일선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읽어내고 몸으로 표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행사를 기
획했던 일, 그리고 '성폭력생존자 말하기 대회'와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치러진 전시 및 자료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담은
사실들에게 말함으로써 자신이 생존자임을 확인하고 성폭력 사실을 안후 자신들이 겪은 고통과 치유에 대해 과정을 말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으며, 약 100여명의 참가자가 1997년
12월의 말하기 센터들로 진행된 이 행사에서 고백한 이야기의 지위에 힘과 통가를 공유하고 지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한국성폭력 상담소에서 열린 전시 소개 글 의 자
원활동까지... 이 모든 일들이 몸도 마음도 미처도록 힘들게 했지만,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을 몸 구석구
석 각인시킨 것 같다. 함께 준비했던 여성주의자들과의 우정, 공연을 보러 온 여성주의자들의 즐거워하
는 모습과 그들의 가슴에 남아있을 감동...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 이대로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불끈불끈
생기곤 한다.



이제는 힘이 현재에 너무 배어 있지 않으려고 한다. 몇 달 공연 기획사에서 일하면서 전쟁 같은 하루하루에 너무 힘을 빼앗겼던 것 같다. 정말 내가 이 판에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배우고 어떤 것을 버려야 할 지 늘 기억해야겠다. 뿔뿔이 흩어져서 각각 지치고 힘을 나날을 보내는 여성주의자들에게 어떻게 또다시 감동을 주고 힘을 줄 수 있을 지를, 그리고 어떻게 그런 판을 짜낼 수 있을 지를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겠다. 이 칼럼을 쓰는 것 또한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감동을 주는 문화기획을 소개하고, 그런 일을 꾸준히 해내고 있는 문화 기획자를 만나서 소개하다 보면 나 역시 흔들리지 않고 힘을 받을 수 있으리라.

3월... 많은 '시작'들이 있는 달이다. 얼마 전 본 연극 '19 그리고 80'에서 주인공 모드는 하루에 한가지씩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좌우명이라고 했다. 하루에, 하나씩, 새로운 일... 그리 어렵지 않으면서 사는 게 더 신나고 재미있을 것 같다. 해보지 않은 일들, 못해본 일들을 조금씩 저지르면서 살기. 나에게서는 오늘, 처음으로 맡게 된 칼럼에 첫 글을 쓴 것이 새로운 일이었다.. **See Sud**



이성주의 소설 **이성주의**

26살인 나에게 가장 두렵게 다가온 사실은 갑자기 이마에 뿔루지가 나기 시작했다는 사실도 아니고, 번듯한 애인 하나 없다는 사실도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20대의 후반기에도 부모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졸업한 여성주의자의 세상 살기

2004년 1월 1일에 나는 또 한 살을 먹어 26살이 되었다. 거창한 포부와 해방감을 얻은 채 20대 고개에 들어선 이후 5년 동안 학교 다니고 1년 동안 회사를 다니고 나서 정신을 차려 보니 26살이 되어 있었다.

나이 드는 것에 대해 무덤덤하던 나였는데 이번에는 좀 달랐다. 1월 1일부터 며칠 동안 가슴이 먹먹한 증상에 시달릴 정도였다.

26살인 나에게 가장 두렵게 다가온 사실은 갑자기 이마에 뿔루지가 나기 시작했다는 사실도 아니고, 번듯한 애인 하나 없다는 사실도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20대의 후반기에도 부모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왜냐하면 나의 부모님은 곧 죽어도 결혼은 꼭 해야 한다고 철석같이 믿는 분들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남 보기 부끄럽지 않게 반드시 결혼적령기에 말이다. 안 그래도 누구 결혼식에만 갔다 오면 너는 괜찮은 남자 하나 물어 오는 능력도 없냐고 타박을 주던 우리 부모님이다. 그런데 딸자식이 이제 26살, 본격적인 결혼적령기에 접어들고 말았으니 그 귀찮은 잔소리가 부쩍 늘어날 것이 불을 보듯 뻔했다.

나름대로 튼실하게 잘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내가 사귀는 남자가 없고 20대에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이유로 그런 잔소리를 들으며 사는 것은 좀 구질구질한 일이 아닐까? 그렇다고 부모님과 떨어져 독립해서 살고 싶지도 않았다. 아니, 독립할 능력이 안 된다는 말이 더 맞겠다. 잔소리 듣기 싫다고 집을 나가기에는 통장 잔고가 너무 뻔했던 것이다.

궁리 끝에 나는 10대 후반기보다도 더 질풍노도 같은 20대 후반기를 무사히 보내려면 부모님과 한 지붕 아래 평화롭게 공존하며 살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변화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착한 딸이 된다고 해서 부모님의 잔소리를 안 들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과격한 딸을 데리고 사는 괴로움은 좀 덜어 드릴 수는 있을 테니까.

가사노동 그동안 나는 남동생은 뇌두고 나에게만 가사를 도우라고 말하는 부모님이 알아워서 일부러 게으름을 피웠다. 하지만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일단 설거지부터 시작했다. 아침에는 출근 준비하느라 안 되지만 저녁에는 내가 설거지를 맡겠다고 나섰다. 내 방 안을 꼭 정리했다. 워낙 지저분하게 사는 성격이라 보다 못한 어머니가 대신 청소를 하곤 했지만 이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정리해 두기로 했다. 싫어해 마지않는 요리에도 도전했다. 첫 도전 요리는 김치볶음밥과 김치전 간단한 요리지만 라면 끓이는 것도 힘들어하는 나에게 그야말로 대단한 도전이었다. 각종 찌개류와 말반찬 만드는 법도 익히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대화 그동안 나는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았다. 집 밖에서 있었던 일도 거의 얘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되지. 저녁을 먹으면서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연스럽게 꺼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머니가 수다를 떨고 싶어 할 때 가까이 상대가 되어 드렸다. 건강으로 듣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귀를 기울였다.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와서 허 고부라진 소리로 말을 걸어도, 노무현 대통령을 뽐내라고 욕해도 짜증내지 않았다.

취미 그동안 나는 부모님과 운동도 같이 안 하고 텔레비전도 같이 안 봤다. 하지만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되고 말고 토요일 아침마다 어머니와 형제 근처 학교의 운동장을 뛰었다. 일요일 아침에는 가까운 아산으로 등산을 갔다. 텔레비전에서 재미있는 영화를 상영하면 부모님에게 얘기해서 같이 봤다.

기타 아침에 30분 더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와 화장실 쓰는 시간이 겹치지 않게 했다.

이렇게 쓰고 보니 내가 제법 효녀가 된 것 같은데 한동안은 정말 그랬다. 스스로가 대견스러울 정도로, 그러나 역시 착심삼일. 2004년이 된 지 두 달이 지난 지금 상황은 이렇다.

가사노동 설거지는 주말 저녁에만 겨우 한다. 방 안은 다시 난정만이 되었다. 할 줄 아는 요리는 여전히 김치볶음밥과 김치전뿐이다. 그나마 김치전 뒤집는 건 여전히 서툴다.

대화 내 이야기는 잘 안 한다. 그래도 듣는 것은 잘한다. 어머니 덕분에 나는 이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들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에게 짜증 안 내는 것도 그러저럭 잘한다.

취미 추워서 밖에 못 나가겠다며 봄이 오면 운동하겠다고 미뤄 버렸다. 영화는 역시 혼자 보는 게 좋다.

기타 30분 더 일찍 일어나긴 하는데 아버지와 화장실 먼저 쓰겠다고 욕심부리는 건 왜 여전히 의문이다.

뭐, 그렇지만 어쨌든 부모님과 나의 관계가 예전보다는 조금 더 평화로워진 것만은 분명하다. 중요한 것은 내가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 이런 나를 보고 이제 시집 갈 때가 된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See y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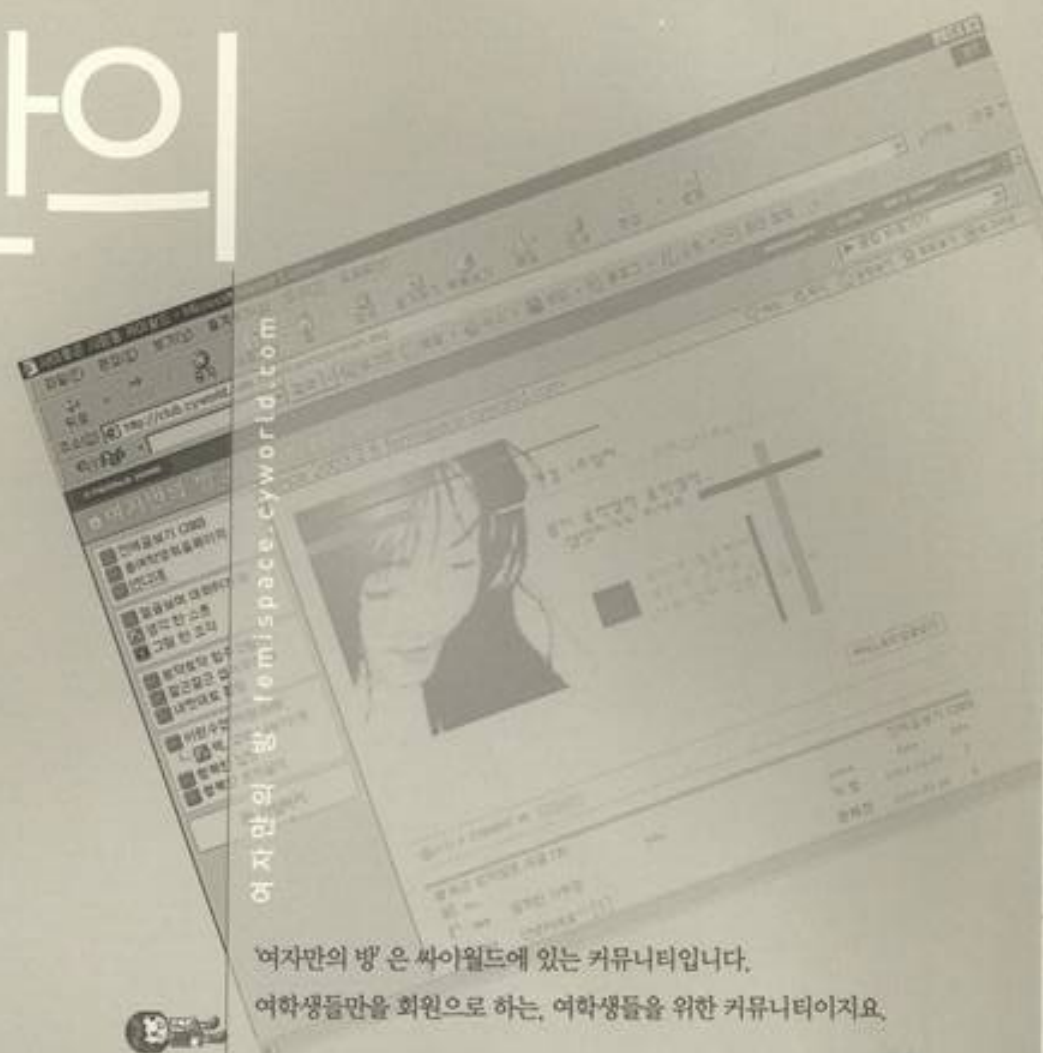


She said 특집 팀에서
함께 할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말하지 못했던, 말하고 싶었던
일상의 이야기들을 속 시원히 풀어놓아봐요 ^^
She said 와 함께 하고 싶은 분은

메일 주소
happyfem@yonsei.ac.kr
요기로 메일주세요

**여성주의적 시선으로 세상 바라보기.
고민하기.
그리고 그것을 글로 풀어내는 공간**

여자만의 방



‘여자만의 방’은 싸이월드에 있는 커뮤니티입니다.
여학생들만을 회원으로 하는, 여학생들을 위한 커뮤니티이지요.

학교에 가면 하루에도 수 십 명, 수 백 명의 여학생들과 마주치게 되지만 학내 어느 공간에서도 여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기는 어렵습니다. 여성이라서 불편했던 이야기들, 혹은 여성이라서 겪게 되는 고민들을 큰 소리로 말하기에는 학내 분위기와 문화가 너무도 남성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여자만의 방은 그 묻혀버린 여학생들의 목소리를 위해 존재합니다. 어떤 사소한 글이라도 좋아요. 여자만의 방에서는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들이 여학생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혼자 살기 노하우나 맛있는 음식점, 그리고 베품시장과 함께 하고 싶은 공연 등 생활 정보도 가득가득 채우고 있고요^^

새 단장한 여자만의 방에 꼭 들러주세요! 여자만의 방을 다른 누구도 아닌 여러분 자신의 공간으로 만들어주세요^^

“여자만의 방” femispace. cyworld. com



She Said 1호.. 즐겁게 보셨나요?

실린 글들을 읽으면서 내 이야기라고 맞장구 치셨다면

혹은 덧붙여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총여학생회 홈페이지에 있는 모니터링 게시판에 글을 올려 주세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이름이라도 좋고 별명이라도 좋겠지요)와

이메일을 함께 적어 올려주시면 됩니다.

She Said의 독자기고란 <Talk to Her>에 글이 채택되신 분께는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Talk to Her는 요기로.

www.yonsei.ac.kr/~ysfem